

# “돌고 돌아 제자리” 가수로 컴백한 솔비

### 디지털 싱글 ‘터닝 포인트’ 음악감상회 가져 화가에서 3년 만에 컴백 “가수 활동 적극적”

솔비가 화가에서 가수로 돌아왔다. 3년 만에 발라드를 발표한 그는 앞으로 가수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해 기대감을 높였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의 한 카페에서 가수 솔비 디지털 싱글 ‘터닝 포인트’ 발매 기념 음악감상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솔비는 신곡 ‘눈물이 빗물 되어’를 들려주고, 음악과 근황에 대해 취재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솔비는 3년 만에 발라드를 발표한다. 그는 “3년 만에 발라드로 돌아왔다. 지금 너무 긴장돼서 다른 거 할 때보다 음악으로 만날 때 더 떨린다. 지난해부터 노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은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하다가 대중과 소통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갈증을 느꼈는데 과거 밴드를 하던 소속사 대표님의 영상을 보다가 이 노래를 들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마음에 걸리더라. 이 노래를 한 번 불러야겠다 해서 부르게

됐다. 사실 나는 이 노래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대리인 느낌이다. 대중이 주인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눈물이 빗물 되어’는 블루스 감성의 어쿠스틱 발라드로, 서정적인 피아노 인트로를 거쳐 솔비의 깊은 감성이 더해진 애잔한 이별 노래다. 사랑하지만 이별하고, 이별했지만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랫말에 담았으며, 솔비의 실제 경험과 맞닿은 애절한 가사가 공감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솔비는 신곡에 대해 “힘을 빼고 솔직하게 불러봤다. 예전에는 노래를 부를 때 포장을 하려고 했다. 지금은 감정을 빼면 슬프게 들리는 게 있다. 미술을 하면서 탄탄한 마음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떠올리면서 불렀다”며 “‘눈물이 빗물 되어’가 가을 연금처럼 가을마다 생각나는 음악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솔비는 오랫동안 가수로 돌아온 것에 대해 “어떤 분이 내게 ‘미술을 할 때 년 몇년 거 같지만, 가수 일 때가 가장 너답다’고 말했다. 나다운 게 무엇인지 고민해서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온 느낌이다. 음악을 하는데 자신감도 생겼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터닝 포인트’로 잡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음악적으로 성장했고 그 성장한 포인트가 대중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시기를 기다렸고, 지금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 노래를 다양한 장르로 여섯 번의 편곡을 했는데, 편안하게 대중과 만나고 싶

어서 발라드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술을 할 때와 음악을 할 때의 차이점과 관련해서는 “미술은 대중을 등지고 한다. 정답이 없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가는 느낌이다. 반면 음악은 화려한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라며 “이번 음악으로 ‘솔비도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가수구나’를 알리고 싶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솔비는 “매번 성장하는 모습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좋은 음악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뉴스1

## ‘동백꽃’ 인생캐 꽃피운 오정세 ‘스토브리그’로 대세 잇는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으로 인생 캐릭터를 만난 오정세가 SBS 새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 (극본 이신화/연출 정동윤/제작 더스토리웍스, 김픽처스) 출연을 확정 지으며 대세 행보를 이어간다.

‘스토브리그’는 팬들의 눈물 마저 마른 꼴찌팀에 새로 부임한 단장이 낯다른 시즌을 준비하는 뜨거운 겨울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선수가 아닌 단장을 비롯한 프런트들의 치열한 일터와 피, 땀, 눈물이 뒤섞인 고군분투를 생동감 있게 펼쳐내는 ‘돌직구’ 오피스 드라마다.

오정세는 극 중 구단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실질적인 구단주 권경민으로 분한다. 현재 맹활약 중인 ‘동백꽃’ 하창은 귀요미 노규태와는 180도 다른 매력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다수의 작품에서 증명된 ‘케미 자판기’답게 이번에는 남궁민과 남다른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정세는 최근 영화 ‘극한직업’, ‘스윙키즈’, ‘조작된 도시’



드라마 ‘조작’, ‘미생나인’, ‘벵 파이어 탐정’ 등을 통해 장르와 배역을 불문한 폭넓은 연기를 펼쳐왔다. 참여하는 작품마다 스스로의 얼굴을 바꾸며 대중들을 놀라게 하는 오정세가 ‘스토브리그’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모인다.

‘돌직구’ 오피스 드라마 SBS ‘스토브리그’는 ‘배가본드’ 후속으로 오는 12월 13일 금요일 밤 10시에 처음 방송된다.

뉴스1

## 정진운♥경리, 2년째 연인... ‘곰신 커플’



그룹 2AM 정진운과 걸그룹 나인뮤지스 경리가 2년째 열애 중이다.

정진운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리는 13일 뉴스1에 “정진운과 경

리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하며 자연스레 친한 관계를 이어오다 2017년 말부터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진운과 경리의 만남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며 “정진운은 성실하군 복무 이행을, 경리는 꾸준히 방송 활동으로 찾아볼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가요계에 새로운 커플이 탄생했다. 두 사람은 코미디 TV ‘신상 터는 녀석들’에 함께 출연하며 가요계 선후배로 지내오다 지난 2017년 말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그해 12월 듀엣곡 ‘돌만의 크리스마스’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진운이 지난 3월 군 입대한 뒤에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정진운은 1991년생으로 지난 2008년 2AM 싱글 앨범 ‘이 노래’로 데뷔했다.

경리는 정진운보다 1세 연상인 1990년생이다. 지난 2012년 나인뮤지스 싱글 앨범 ‘뉴스’(News)로 가요계에 데뷔한 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뉴스1

## 강다니엘, 25일 컴백 확정 “다양한 시도로 소통할 것”

가수 강다니엘이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며 4개월 만에 돌아온다.

강다니엘은 지난 13일 0시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한 장의 티저 이미지를 기습 공개하며, 오는 11월 25일 오후 6시 디지털 싱글 발매 소식을 예고했다.

이번 앨범은 지난 7월 솔로 데뷔 앨범 ‘color on me(컬러 온 미)’ 발매 이후 강다니엘이 4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보로, 예상을 뒤엎고 디지털 싱글 형식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 오는 11월 25일 디지털 싱글로 컴백한다”라고 밝히며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통해 소통하고자 한다. 이례적인 디지털 싱글 발매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뉴스1

## 배우 박보영, 활동 중단 직접 알려

소속사 “팔 부상 등으로 휴식”

배우 박보영이 팔 부상으로 휴식을 선언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언제까지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보영의 소속사 피데스스파티움 관계자는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보영이 영상에서 알렸듯 팔부상도 있고, 계속 작품을 하며 달려와서 조금 쉬기로 했다. 언제까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분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보영은 지난 12일 자신의 V라이브 채널에서 팔 부상 사실을 알리며 당분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직접 밝혔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쉬는 것이다. 내가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활동 재개까지)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면서 “쉽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



쩔 수 없다.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너무 힘들다. 나도 슬프다. 너무 질타하진 말아달라. 차기작은 건강해진 후에 많이 하겠다”고 알려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 또 연락하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잘 극복하고 용기내서 다시 V업을 커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박보영은 지난해 영화 ‘너의 결혼식’의 여주인공 환승희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 올해 6월 중영한 tvN 드라마 ‘어비스’에서도 주연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

###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2관	신의 한 수-귀수편
3관	82년생 김지영
4관	신의 한 수-귀수편
5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가장 보통의 연애
6관	닥터 슬립
7관	말레피센트2, 조커, 가장 보통의 연애
8관	신의 한 수-귀수편
9관	82년생 김지영, 날씨의 아이, 아담스 패밀리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 CGV\* 광주하남점

1관	날씨의 아이,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닥터 슬립
2관	82년생 김지영,
3관	날씨의 아이, 신의 한 수-귀수편, 아담스 패밀리
4관	신의 한 수-귀수편
5관	아담스 패밀리, 82년생 김지영, 닥터 슬립
6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